

자궁경부암 검진은 왜 받아야 하나요?

-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으며 증상이 생긴 후에 병원을 찾게 되면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 검진을 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진행되기 전단계인 자궁경부상피이형성증이나 상피내암단계 같은 상태에서 병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고 침윤성 암의 경우에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완치율을 높이게 됩니다.

성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여성이라면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으세요.

■ 자궁경부세포검사(1년 마다)

- 30세 이상 여성의 경우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에서 2년마다 무료로 암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예방, 일상 생활에서 실천하세요!

- 안전한 성생활 (첫 성 경험 연령을 늦추고, 남녀 모두 성 상대자 수 최소화하기, 콘돔 사용하기 등)
-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 금연

자궁경부암 검진의 시기 및 주의사항

- 생리 기간은 되도록 피하고 생리 시작일로부터 10~20일 사이에 시행합니다.
- 비정상적인 질 출혈, 분비물이 있는 경우에는 출혈에 관계없이 검사합니다.
- 최소한 검사 48시간 전부터 성 관계, 탐폰 사용, 질 세척, 질 내 약물 및 윤활제, 질 내 피임약의 사용은 피합니다.

+ 암 예방을 위한 국민 암예방 수칙 +

-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 술은 하루 두 잔 이내로만 마시기
-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 예방접종 받기
-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 세부내용은 국가암정보센터를 참고하십시오.

암에 대한 바른 정보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www.cancer.go.kr

제 작 :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문의처 :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 www.cancer.go.kr)

자궁경부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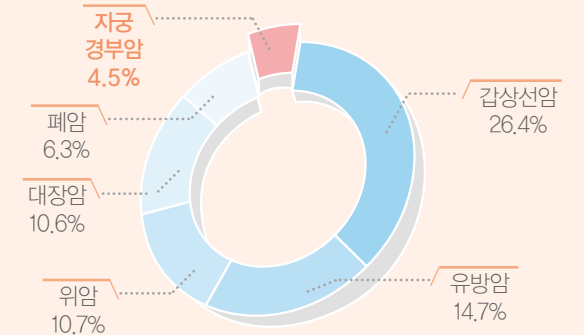
예방과 검진 미리 미리!



대한민국의 여성암 중 발생률 6위

자궁경부암이란 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여성 생식기 암으로 우리나라 여성에서 여섯 번째로 흔한 여성암입니다.

[2008년 암 발생분율 : 여자]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10]

자궁경부암의 위험요인은 무엇인가요?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바이러스감염을 비롯하여 생활 요인과 환경 요인 및 유전 요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발생합니다.

-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 : 매우 흔하게 감염되며, 감염되어도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대부분 특별한 치료 없이 낫습니다.
- 흡연
- 가족력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란?

인유두종바이러스는 매우 흔한 바이러스로, 성생활을 하는 여성의 50% 이상이 일생에 한 번 이상 감염됩니다. 특별한 증상 없이 대부분 감염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게 되며, 감염의 70~80%는 1~2년 이내에 자연적으로 사라집니다. 매우 드물게 감염이 지속될 경우 전암 병변(암 이전 단계)을 거쳐 자궁경부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나요?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려진 위험 요인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진
- 안전한 성생활
첫 성 경험 연령을 늦추고, 남녀 모두 성 상대자 수를 최소화하며 콘돔을 사용합니다.
-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국가 예방접종 권고안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자궁경부암 검진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금연

자궁경부암은 어떤 증상이 있나요?

자궁경부암은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다만 자궁경부암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비정상적인 질 출혈
 - 폐경기 이후의 출혈
 - 생리 기간이 아닌데도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출혈 (성 관계 후, 심한 운동 후, 대변을 볼 때, 질 세척 후에 많이 나타날 수 있음)
 - 질 세척 후 출혈
- 질 분비물의 증가
- 질 분비물의 악취
- 골반통, 요통
- 체중 감소

자궁경부암 검진 프로그램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조기 검진 권고안 대한산부인과학회, 국립암센터, 2001
 - 검진대상 : 성 경험이 있거나 만 20세 이상의 모든 여성 단, 성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음
 - 검진주기 : 1년 간격(단, 진단, 치료, 추적 검사의 필요성에 따라 산부인과 전문의의 판단에 의하여 조절될 수 있음)
 - 검진방법 : 자궁경부세포검사

-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국민에게 암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수검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암검진을 무료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검진대상 : 만 30세 이상 여성
 - 검진주기 : 2년 간격
 - 검진방법 : 자궁경부세포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자궁경부세포검사
자궁경부암의 전 단계 병변인 자궁경부상피이형성증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까지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검사법입니다. 질경을 넣어 자궁경부를 보이게 한 다음, 세포 채취용 솔로 자궁경부 세포를 채취하여 유리 슬라이드에 도말하여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비교적 간단하고 통증이 없으며 가격이 저렴한 좋은 검사이나 병변이 있는 경우에도 정상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액상세포도말검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기존의 방법(Pap test)에 비해 위음성률이 낮아졌습니다.
 - ※ 위음성률 : 질병이 있음에도 검사 결과 음성(질병이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의 비율

-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의 위음성률을 줄이고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적 검사입니다. 외래에서 간단하게 질 안의 분비물을 채취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아프지 않고 출혈도 없으나, 일반 검진이 목적인 경우 보험 급여 처리가 되지 않아서 추가 비용이 듭니다.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의료급여수급권자(1종, 2종)
-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이 하위 50% 이하인 분
- ※ 건강보험가입자 상위 50%에 해당하실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암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 검진 안내문을 받으신 해당연도 내에 검진 기관에 가셔서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드린 검진 안내문에 안내되어 있는 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거나, 분실하셨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드린 국가암검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대상자 표지와 신분증(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지참하시고 검진 기관을 방문하셔서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 대상자 표지를 받지 못하셨거나, 분실하셨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검진 결과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 검진을 받으신 후 15일 이내에 검진 기관에서 결과 통보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에 대해서도 암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궁적출수술을 받았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아야 할까요?

자궁적출수술을 받으셨다면, 자궁경부가 함께 적출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의 방법에 따라 자궁을 적출할 때 자궁경부나 난소가 남겨져 있는 수가 있습니다. 자궁경부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자궁적출수술을 받으셨더라도 정기적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미혼 여성도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미혼 여성이라도 성 관계를 시작했다면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궁경부암의 원인 중 하나는 성 관계로 전파될 수 있는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이므로,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성 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는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질 출혈이 있습니다. 암인가요?

질 출혈은 여성의 질을 통해 나오는 출혈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실제로 질에서 피가 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자궁 입구 또는 자궁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질 출혈은 자궁근종이나 질, 외음부 질환, 자궁경부암 등 그 외 염증성 질환, 자궁경부와 내막의 양성 질환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또한 이러한 출혈은 성 관계나 심한 운동 후, 대변을 볼 때, 질 세척 후에도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 출혈 자체만을 가지고 암을 진단할 수 없습니다. 원인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르므로 비정상적인 질 출혈이 있다면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고 규칙적으로 산부인과적 진찰과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